

Dearly Loved Children

August 11, 2024

Bo Brady

사랑받는 자녀들

2024년 8월 11일

보 브래디

A few weeks ago, I taught out of Ephesians 4 which includes this very vivid instruction about growing up into maturity - after giving a list of things to do for the equipping of the saints, Paul says: 몇 주 전에 저는 에베소서 4장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그 장에는 성숙으로 자라나라는 매우 생생한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라는 목록을 제시한 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Then we will no longer be infants, tossed back and forth by the waves and blown here and there by every wind of teaching and by the cunning and craftiness of people in their deceitful scheming. Instead, speaking the truth in love, we will grow to become in every respect the mature body of him who is the head, that is, Christ. Ephesians 4:14-15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계획에 의해 이리저리 흔들리며 온갖 가르침의 바람에 휩쓸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면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14-15**

Seems clear. We need to grow up. Act our age. (We used to say "Act your age, not your shoe size" as the ultimate burn). I think we could all agree that if there's a prize in this verse, it's maturity and it's expressed that becoming like Christ is the definition of that maturity. The prize is maturity, the mission statement is: Don't be infants.

And yet. This is one of those things I love about the Bible. We're always looking for bible verses to load into our intellectual guns like truth bullets and it rarely works that way. Check out this verse in 1 Peter 2: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나이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신발 사이즈 말고 나이에 맞게 행동해라”라고 말하곤 했죠. 이것은 최고의 비꿈이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성숙이라는 상이 있고, 그 성숙이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그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상은 성숙이고, 사명 선언문은: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제가 성경에서 사랑하는 점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 구절을 지적 무기로 삼아 진리의 탄환으로 장전하려고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잘 작동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1 베드로 2장의 이 구절을 한 번 보세요:

Therefore, rid yourselves of all malice and all deceit, hypocrisy, envy, and slander of every kind. Like newborn babies, crave pure spiritual milk, so that by it you may grow up in your salvation, now that you have tasted that the Lord is good. 1 Peter 2:1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속임수, 위선과 시기, 그리고 모든 종류의 비방을 버리십시오. 갓난아기들처럼 순수한 영적 젖을 사모하십시오. 이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니 말입니다. 1 베드로 2:1

Paul and Peter choose the same metaphor but in nearly opposite ways. Don't be like babies. Be like babies. We could blame it on the fact that these are two different authors with different ideas and worldviews and writing styles. BUT...just a few verses later in Ephesians, Paul says this (and this is actually our text today):

바울과 베드로는 같은 비유를 사용하면서도 거의 반대되는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아기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말과 "아기처럼 행동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다른 저자들이 서로 다른 생각과 세계관, 그리고 글쓰기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탓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몇 구절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룰 본문입니다):

Follow God's example, therefore, as dearly loved children and walk in the way of love, just as Christ loved us and gave himself up for us as a fragrant offering and sacrifice to God. Ephesians 5:1-2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처럼 하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사랑 안에서 행하십시오. 에베소서 **5:1-2**

Paul has said, “We can no longer live like children” and now he says, “live as dearly loved children”. What gives? All the twists and turns in these verses are actually working together to paint a beautiful picture of the transformative work of Jesus in the lives of those who follow him. I LOVE THIS. Let’s listen to King Jesus on the matter:

바울은 “더 이상 어린아이처럼 살 수 없다”고 말한 뒤, 이제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 구절들 속의 모든 반전과 전환은 사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변혁적인 사역을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이 주제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죠.

At that time the disciples came to Jesus and asked, “Who, then, is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2 He called a little child to him, and placed the child among them. 3 And he said: “Truly I tell you, unless you change and become like little children, you will never enter the kingdom of heaven. 4 Therefore, whoever takes the lowly position of this child is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5 And whoever welcomes one such child in my name welcomes me. Matthew 18:1-4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물었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입니까?” **2**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3**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변하여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4**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5** 그리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8:1-4**

This is pretty clear because Jesus isn’t just speaking in metaphor - he’s got a kid right there with him. Imagine it please: These full grown men. Fishermen. Tax Collector. A

zealot. A thief. All have given their lives to follow this rabbi. To hear His words and wear his dust and become LIKE him. And now, Jesus is pointing to a little kid, saying: Become like HIM. But wait - He's not just saying : being childlike is a way to enter the kingdom, he's saying it's the ONLY way.

Jesus of Nazareth. King Jeuss. The Messiah. The one we have worshipped this morning with flowing words and fanfare had this moment where he said there is something that will KEEP you from getting into the kingdom of God. In fact, He says, that they're already not living this out..."unless you CHANGE and become like children."

I'm going to submit to you this morning that this idea of becoming a childlike follower of Jesus is a principle that is wildly undervalued and under-preached in the Church. The language around this is too strong to have heard so few sermons about it in my 50 years as a follower of Jesus.

You must be like children to enter into a full, flourishing relationship with God. 이것은 매우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단지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린이를 곁에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들 모두 성인 남성들입니다. 어부들, 세리, 열심당원, 도둑 등이죠. 모두가 이 스승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쳤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먼지를 맞으며, 그분처럼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작은 아이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처럼 되어라." 그런데 잠깐만요—그분은 단지 어린아이 같은 것이 왕국에 들어가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렛 예수님, 왕 예수님, 메시아이신 그분은 오늘 아침 우리가 찬양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분은 우리가 이미 이 일을 제대로 살지 않고 있다고 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예수님의 어린아이 같은 추종자가 되는 이 아이디어가 교회에서 심각하게 과소평가되고, 설교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는 원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르며 **50**년을 살아오면서 이와 관련된 설교를 이렇게 적게 들었던 것은

그 언어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하고 번창하는 관계에 들어가려면, 여러분은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합니다.

You must be childlike.

And you must NOT be childish. 그리고 여러분은 결코 유치하지 말아야 합니다.

Childish:

Malice

From kakos; badness, i.e. **depravity, or malignity, or trouble. The kind of trouble that spreads and infects and creates a poison in you and in your relationships. Malice is immature - but it's also dangerous to people and to whole communities.**

어린애 같은 행동:

악의 (Malice)

악의는 '카코스(kakos)'에서 유래된 것으로, 부패나 악의, 또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퍼져 나가며 전염되어, 자신과 관계에 독을 만들어냅니다. 악의는 미성숙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전체 커뮤니티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Deceit

This is particularly the kind of deceit that's used to bait someone into something. It's like a scam or a get-rich-quick-scheme. People who lie to get something for themselves are babies and they're in danger of drowning in their own lies. 속임수 (Deceit)

이 속임수는 특히 누군가를 유인하기 위해 사용되는 유형입니다. 이는 사기나 빠르게 부자가 되려는 계획과 비슷합니다.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얻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으며, 자신의 거짓말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Hypocrisy

An actor. A response. This is probably the most sanctioned - and in some cases required - immaturity within the church. How are you? Fine. Even when you feel like your world is on fire? Even when last night you considered ways you might end it all. How's your marriage? Great. Even though you don't know if you're going to make it through the year or the month? We fix our responses to fit with the community of faith. We even craft them for people: "God is good?" "All the time!" I mean...great statement but aren't there times when you wonder..is He? Like...ALL the time? We've trained ourselves to believe it's better to be hypocritical than it is to express the true questions of our hearts and our church fathers are saying:Hypocrisy is not the faith of a child...it's childish, not childlike, and it's dangerous. 위선 (Hypocrisy)

위선은 연기와 반응의 문제입니다. 아마도 교회 내에서 가장 허용되거나 때로는 요구되는 미성숙함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요." 설령 당신의 세상이 불타고 있다고 느끼더라도, 어젯밤에 모든 것을 끝내려는 방법을 고민했더라도 말이죠. "결혼 생활은 어때요?" "좋아요." 하지만 올해나 이 달을 버틸 수 있을지 확신이 없다면요? 우리는 신앙 공동체에 맞추기 위해 반응을 수정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을 위해서도 말이죠: "하나님은 좋으신가요?" "항상 좋으시죠!" 멋진 말이긴 하지만, 언제나 그런지 의문이 들 때도 있지 않나요? 우리는 진정한 마음의 질문을 표현하기보다는 위선적이 되는 것이 낫다고 배웠습니다. 교회 선배들은 위선이 아이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그것은 유치하며, 위험할 수 있습니다.

Envy

properly, strong feeling (desire) that sours, due to the influence of sin; the miserable trait of being glad when someone experiences misfortune or pain. 질투 (Envy)
질투는 본래 강한 욕망의 감정으로, 죄의 영향을 받아 시들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불행이나 고통을 겪을 때 기뻐하는 불행한 특성입니다.

Slander

Evil-speaking, backbiting, detraction, slander. From katalalos; defamation.

These things are junk food and they keep us from longing for the true food of the word of God and the way of Jesus. Don't be childish. 중상모략 (Slander)

중상모략은 악의적인 발언, 뒤에서 헐뜯기, 비방을 의미합니다. 이는 신용을 훼손하는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의 진정한 양식과 예수님의 길에 대한 갈망을 방해하는 '쓰레기 음식'과 같습니다. 어린애처럼 행동하지 마십시오.

Paul says: ***Follow God's example, therefore, as dearly loved children and walk in the way of love, just as Christ loved us and gave himself up for us as a fragrant offering and sacrifice to God. Ephesians 5:1-2*** Paul의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본을 따르고, 사랑의 길을 걸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을 우리를 위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처럼 하십시오." (에베소서 5:1-2)

Secure (belonging)

Provided for

Innocence

Wonder

Identity: They understand their identity is sure and certain. My kids never wondered, "Will I be a Stern tomorrow? Will someone else step in and become a Stern and I'll be kicked out of the house? They belonged. 안전한 (소속감)

제공받다

순수함

경이로움

정체성: 그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확실하고 확정적임을 이해합니다. 제 아이들은 "내일도 내가 Stern일까? 누군가가 대신 들어와서 Stern이 되고 나는 집에서 쫓겨날까?"라고 고민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LOVE... (My Drowsy doll. **PICTURE** My parents had to have a talk with me about ‘if the house catches on fire, do NOT worry about Drowsy. And I honestly believe their talk would not have mattered to me. I would’ve risked my life to save Drowsy. That’s childlike love. It’s silly. It makes no sense. It’s irrational. It’s how Jesus loved us.) ”walk in the way of love”. JUST AS CHRIST loved. The opposite of malice, deceit, hypocrisy, envy, slander. Those things are childish. Unearned love is childlike.

Paul paints this picture of a *most* beautiful life...especially to Christians who are not experiencing those benefits in their natural lives. The ones he is writing to are persecuted, unsafe, going without, not true citizens of the empire. They are not surrounded by natural safety or abundance, so Paul is saying - sink your roots deep into the belonging and care that relationship with Jesus provides. (ILLS: Time when my life blew up and I just wanted to go home to my mom’s house. Be little. Be cared for.).

So we see a principle at work here - this idea of becoming like a child in order to reach true maturity is ... but for every principle, there’s a problem and the problem here is that the world is always pushing us to become adult-like, rather than mature. Adult-like means I start to make my own decisions and look out for my own interests and begin to judge whether or not people are worthy of my love. I begin to get selfish and jealous and competitive and malicious. That’s the grownup, dog-eat-dog world, but that’s not maturity. That might be adult-like, but not mature.

But Paul goes on to explain some of the things that will interrupt and eat away at our childlikeness and these things could also be evidence that we’ve become immature grownups: 사랑... (나의 졸린 인형. 사진) 부모님께서서는 ‘집이 불에 타더라도 Drowsy는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솔직히 그 말이 저에게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Drowsy를 구하기 위해 제 생명을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사랑입니다. 그건 어리석고, 말이 안 되며, 비합리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식입니다. “사랑의 길을

걸으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악의, 기만, 위선, 질투, 비방의 반대입니다. 이런 것들은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다. 공짜로 주어진 사랑이 어린아이 같습니다.

바울은 가장 아름다운 삶의 그림을 그립니다... 특히 자연적인 삶에서 이러한 혜택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가 쓰고 있는 이들은 박해를 받고, 안전하지 않으며, 부족한 것들 속에 살고 있으며, 제국의 진정한 시민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연적인 안전이나 풍요로움에 둘러싸여 있지 않으므로 바울은 - 예수님과 관계가 제공하는 소속감과 보살핌에 뿌리를 깊게 내리라고 말합니다. (예시: 제 인생이 무너졌을 때, 엄마 집에 가고 싶었던 기억. 작아지고, 보살핌을 받고 싶어했던 시절.)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원칙이 작용하는 것을 봅니다 - 진정한 성숙에 도달하기 위해 어린아이처럼 되는 것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모든 원칙에는 문제가 있으며, 여기서의 문제는 세상이 항상 우리를 성숙해지기보다는 성인처럼 되도록 압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인처럼 되는 것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며 사람들이 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기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이기적이고 질투심이 많고 경쟁적이며 악의적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인의, 경쟁이 치열한 세상이며, 그것이 성숙이 아닙니다. 그것이 성인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성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어린아이 같은 특성을 방해하고 약화시키는 것들을 설명하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미성숙한 성인으로 변했음을 나타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But among you there must not be even a hint of sexual immorality, or of any kind of impurity, or of greed, because these are improper for God's holy people. Nor should there be obscenity, foolish talk or coarse joking, which are out of place, but rather thanksgiving. Ephesians 5:3-4 너희 가운데는 성적 부도덕, 모든 종류의 부정함, 탐욕이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외설, 어리석은 말, 저속한 농담도 있어서는 안 되며, 그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5:3-4**

Paul says BUT AMONG YOU...implying that it's different for those who don't know and follow God.

Jesus said, "Unless you CHANGE...and become like children"

It appears from these passionate instructions and also from living inside my own life - that there is a default mode that will always try to take us over. To make us less innocent, more jaded, less faithful, more fluid in the standards to which we hold ourselves. And this fluidity with truth will always make us less *childlike* in our faith and more *childish* in our behavior and treatment of others.

Paul mentions sexual immorality and impurity. Impurity is defined in the greek as "mixture or an open infection." It's what happens when a kid cuts herself with a dirty knife - a toxin punctures the skin and introduces an infection that can wreak havoc in her system. That's impurity and sexual immorality. It mixes the beauty of sexual intimacy with objectification and unfaithfulness. It's poison. (Baby Cindy used to watch - Pepsi and snickers bar - jarring to see a baby fill up with such truly terrible food and to watch the effects of it.). Peter said it beautifully: As a newborn baby LONG for the pure milk of the Word...LONG for true life...long for what leads to health and flourishing and freedom.). BEcome childlike in your desire for purity and forsake childish longings for easy substitutes that create painful consequences and Peter Pan people who are never able to grow into the person they were meant to become.

So, to become like children - we put off some things (malice, envy, slander, impurity, immorality), put on some things (truth, purity, faithfulness, compassion, kindness.) But the thing that most clearly defines children is written in neon letters in our text today. And it is the punchline to all of this. It's the one thing to write down and remember, remember, remember. It is, in fact, the one thing that enables us to actually do the putting on of good things and putting off of sin.

Paul은 "너희 가운데"라고 말하며, 이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변화하여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열정적인 지침들과 나 자신의 삶 속에서

살아가며, 기본 모드가 항상 우리를 지배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본 모드는 우리를 덜 순수하게 만들고, 더 냉소적으로 만들며, 덜 신실하게 만들고, 스스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유동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의 유동성은 항상 우리의 신앙을 덜 어린아이답게 만들고, 우리의 행동과 다른 사람에 대한 대우를 더 유치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성적 부도덕과 부정함을 언급합니다. 부정함은 그리스어로 “혼합 또는 열린 감염”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아이가 더러운 칼로 자를 때 발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독소가 피부를 뚫고 들어가 감염을 일으켜 시스템에 혼란을 초래합니다. 이것이 부정함과 성적 부도덕입니다. 그것은 성적 친밀함의 아름다움을 대상화와 불신으로 혼합합니다. 그것은 독입니다. (어린 Cindy가 Pepsi와 Snickers 바를 먹는 것을 보고, 정말 나쁜 음식으로 채워지는 어린이를 보고 그 효과를 보는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아름답게 말했습니다: 신생아처럼 순수한 말씀의 젖을 갈망하라... 진정한 삶을 갈망하라... 건강과 번영, 자유로 이끄는 것을 갈망하라.). 순수함을 위한 어린아이 같은 열망을 가지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초래하고 결코 성장하지 못하는 피터 팬 같은 사람들을 만드는 쉬운 대체물에 대한 유치한 갈망을 버리십시오.

따라서 어린아이처럼 되기 위해 우리는 어떤 것들을 버리고 (악의, 질투, 중상모략, 부정함, 부도덕), 어떤 것들을 입어야 합니다 (진리, 순수함, 신실함, 연민, 친절). 그러나 오늘 우리의 본문에 형광펜으로 쓰여진 어린아이를 가장 명확히 정의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적어도 기억하고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하나의 것입니다. 실제로 그것이 우리가 선한 것들을 입고 죄를 버릴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것입니다.

Follow God's example, therefore, as dearly loved children...

Dearly loved.

That defines your life as a child. You are dearly, wholly, unconditionally, magnificently loved. It doesn't say "do all these things so you WILL be loved.. it says, "Do these things because YOU ARE LOVED." You are secure. You don't need panaceas or counterfeits or a snickers bar for breakfast...you are loved. You are a child of love. And that is your identity and the only identity that will ever bring strength and wholeness.

하나님의 본을 따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로서...

사랑받는 자녀로서...

이것이 당신의 삶을 정의합니다. 당신은 깊이, 전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그리고 훌륭하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해서 사랑받게 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이유는 당신이 사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치료제나 가짜, 아니면 스키커즈 바를 아침으로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정체성이며, 유일하게 힘과 온전함을 가져다줄 정체성입니다.

31 What shall we say about such wonderful things as these? If God is for us, who can ever be against us? **32** Since he did not spare even his own Son but gave him up for us all, won't he also give us everything else? **33** Who dares accuse us whom God has chosen for his own? No one—for God himself has given us right standing with himself.
Romans 8:31-33

여기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에 대해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계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32** 그가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셨다면, 다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33**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를 누가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그분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31-33)

He did this for us WHILE we were still childish. While we were being tossed back and forth in a raging sea of sin and selfishness and deception and hurt and pain ...THAT'S when he showed up to save us. If you feel you're being exactly that tossed today..if, while I've been speaking, you felt waves of guilt or shame threatening to storm the shores of your soul because of the anger inside or sexual impurity or just this feeling that your actual childhood was stolen by the demands of life and the brokenness of the world around you - take heart. You are still within reach of His unfailing, unending love.

그분은 우리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을 때, 즉 죄와 이기심, 속임수, 상처와 고통의 거센 파도에 휘말리고 있을 때 우리를 위해 이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만약 오늘 당신이 바로 그런 파도에 휘말리고 있다고 느낀다면, 내가 말하는 동안 죄책감이나 수치심의 파도가 당신의 영혼의 해안을 위협하고 있다면, 또는 분노, 성적 순결 문제, 또는 실제 어린 시절이 삶의 요구와 주변 세계의 깨짐으로 인해 빼앗겼다는 느낌이 들었다면, 마음을 가다듬으세요. 당신은 여전히 그분의 변함없고 끝없는 사랑의 손길 안에 있습니다.

Listen to the rest of Romans 8: **38 And I am convinced that nothing can ever separate us from God's love. Neither death nor life, neither angels nor demons,[b] neither our fears for today nor our worries about tomorrow—not even the powers of hell can separate us from God's love. 39 No power in the sky above or in the earth below—indeed, nothing in all creation will ever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that is revealed in Christ Jesus our Lord. Romans 8:38-39**

이 말씀의 나머지를 들어보세요:

38 나는 확신합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악마도, 오늘의 두려움도 내일의 걱정도, 지옥의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39** 하늘 위의 권세나 지구 아래의 어떤 힘도, 모든 창조물 속의 어떤 것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38-39**)